

# CJ제일제당 비비고, 새로운 BI로 'K-푸드 대명사' 자리매김

서유럽·할랄시장 개척 가속화  
글로벌 소비자에 맞춰 재정비

新 BI, 식문화 나누는 밥상 형상화  
한글·영문 넣어 韓 브랜드 각인  
치킨·만두, 대형 카테고리 육성

CJ제일제당 비비고가 올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K-푸드 브랜드 위상에 맞는 모습으로 거듭난다.

CJ제일제당은 한국 식문화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글로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새 단장 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서유럽과 무슬림 인구를 겨냥한 할랄 시장 개척 등을 목표로 신영도 확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브랜드를 재정비해 전 세계에서 'K-푸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다.

우선 새로운 BI를 선보여 이달부터 국내를 시작으로 일본, 유럽, 동남아, 미국 등 순차적으로 제품 포장에 적용한다. 새 BI는 한국 식문화를 함께 나누는 사람과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밥



CJ제일제당 비비고가 새 글로벌 BI를 적용해 K푸드 세계화에 나선다.

/CJ제일제당

상을 형상화했다.

비빔밥을 담은 돌솥 모양에서 벗어나 K-푸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이전에 영문만 표기했던 것과 달리 한글을 함께 넣어 한국의 브랜드라는 점이 각인될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치킨'과 'K-스트리트 푸드'를 '넥스트 만두'로 선정, 두 가지 품목을 해외 시장에서 대형

카테고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내에서 성과를 낸 '소바바치킨'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떡볶이, 봉어빵, 냉동김밥 등의 판매를 확대한다.

비비고는 '한식으로 더 맛있는 일상'을 뜻하는 브랜드 슬로건인 '리브 딜리셔스(Live Delicious)'를 내세운 다양

한 캠페인으로 글로벌 Gen-Z세대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비비고는 'Life tastes better when you live delicious'를 키 메시지로 비비고를 통해 '더욱 맛있고 즐거워지는 삶'을 중독성 있는 캠페인 송으로 만들어 전세계에 알렸다. 또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자 참여형 '#LiveDelicious 챌린지'를 진행했다. 한국

과 유럽에서는 캠페인 영상의 댄스를 따라 추는 비비고 댄스 챌린지를 진행했고,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마트 계산대에서 캠페인 송을 따라 부르면서 비비고 만두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비비고는 지난해 기준 70여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층의 해외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2021년 LA레이커스와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2023 Lakers Media Day'에서 비비고 푸드트럭을 운영, 만두, 치킨, 볶음밥 제품을 현지 미디어에 선보였다.

이처럼 비비고는 지난 10여년 간 국내 프리미엄 가공식품 시장을 이끌고, 해외 시장을 가장 먼저 개척하며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지난 2019년 슈완스 인수로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확보한 것도 K-만두 브랜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정관장, 설선물 '당일신청·배송' 서비스 진행

일반 택배 마감 후에도 받아볼 수 있어  
결제 즉시 가까운 매장에서 직접 배송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엔 무료 제공

KGC인삼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실시간으로 배송하는 '당일신청·당일배송' 서비스를 오는 8일 정오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관장 '당일신청·당일배송'은 일반 택배 마감 후에도 선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결제 즉시 배송지에서 가장 가까운 정관장 매장에서 직접 배송된다.

설연휴 직전인 2월 8일 정오까지

정관장 로드샵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또는 정관장몰에서 배송지와 가까운 정관장 매장을 안내받아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전국 800여 정관장 로드샵에서는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다보록, 천축, 에브리타임, 홍삼탄, 황진단, 달임액, 화애락, 흥천용, 활기력, 홍삼정 X마누카 시그니처 기획세트, 홍삼정 헤리티지 에디션 등의 정관장 인기제품에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인 '정물'을 이용하는 고객은 '매장픽업', '특별포장'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다.

'매장픽업' 서비스는 '정물'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알람톡 또는 SMS 제품 교환권을 수령하여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정관장 매장에서 제품 픽업이 가능하다.

선물을 직접 들고 다니기 힘들거나 배송처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적합하다.

정물의 시그니처 서비스인 '특별포장'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흥색보자기, 청색보자기, 한지, 리본 등 다양한 형태를 고를 수 있고 포장 전문 명인이 직접 섬세하게 포장해 제품의 품격을 높이고 정성을 더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면세점, '아르마니' 팝업 매장 오픈

신세계면세점이 이탈리아 럭셔리 뷰티 브랜드 '아르마니(ARMANI)' 팝업 매장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팝업 매장은 오는 29일까지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0층 아이코닉 존에서 운영된다. '아르마니 뷰티'를 상징하는 강렬한 붉은색과 함께 감진년을 상징하는 용을 표현한 고급스러운 비주얼이 특징이다. 이번 팝업 매장에서는 수준 높은 디자인의 뷰티 패키지 제품들을 선보인다. 또, 아르마니 뷰티 홍보대사인 그룹 갯세븐 멤버 '책선'이 10층 아이코닉 존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등장한다.

/신세계면세점

## GC셀 '간암 바로 알기 강좌' 성료 조기진단 필요성 등 알려

GC셀이 간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GC셀(지씨셀)은 2월 2일 '간암의 날'을 기념해 '간암 바로 알기 건강강좌'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혜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서미라 지씨셀 GMP 제조부문 유닛장은 연자로 참여해 간암의 원인, 조기진단의 필요성, 치료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씨셀의 면역세포 치료제인 문셀엘씨주 관련 임상적 효과를 공유했다.

이문셀엘씨주는 초기 간세포암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재발 위험을 37% 낮추고 사망률을 79% 낮추는 효과를 입증해 간암 수술 후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누적 치료 1만명의 데이터도 확보했다. /이정하 기자 ml6e236@

## 셀트리온 제약, '베그젤마 심포지엄' 개최

대장암 전문의와 학술교류

셀트리온 제약이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효능과 안전성 입증에 나섰다.

셀트리온 제약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제주도에서 대장암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베그젤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김종광 경북의대 교수와 신상준 연세의대 교수는 좌장을 맡았다. 임주한 인하의대 교수, 권민석 아주의대 교수, 범승훈 연세의대 교수는 연자로 참석해 최신 대장암 치료 경향에서 베그젤마의 역할을 공유했다.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및 베그젤마 제품 소개 ▲진행성 대장암 현재 치료법 및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의 역

할 ▲전이성 대장암에 대한 3차 이상 치료법 등 3개로 구성된 세션 발표도 각각 이어졌다.

'베그젤마'는 지난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같은 해 12월 국내 시판됐다. 베그젤마의 사용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48개월로 별도의 안정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와 차별화됐다.

희석액 냉장 보관(2~8°C)에서도 기존 제품 대비 2배 더 긴 60일로 허가를 받아 사용자 입장에서 약품 관리가 용이하다.

셀트리온 제약은 글로벌 임상 데이터와 제품 차별점을 바탕으로 베그젤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종합병원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해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전시회 열어

선대회장 탄생 100년 기념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선구자인 고(故)서성환 선대회장의 삶과 도전 정신을 소개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100년 | 1924-2024'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로, 올해 12월 27일까지 경기 오산 '아모레 뷰티 파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에서 열린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가 소장한 800여 점의 자료를 공개한다. 1955년에 취득한 국내 1호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 1961년에 작성한 연구일지 등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생산품과 간행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방문객은 네 개의 주제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와 서성환 선대회장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지난 1일 경기 오산 아모레 뷰티 파크의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에서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100년 | 1924-2024' 전시가 막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

1945년 아모레퍼시픽을 창업한 서성환 선대회장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이정하 기자